

치과 건강보험 교육이 자격증 취득에 미치는 영향

손은교*, 김영진¹, 정화영²

¹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²강릉 영동대학교 치위생과

preference of dental insurance-related and dental health insurance professional qualifications

Eun-Gyo Son^{1*}, Young-Jin Kim¹, Hwa-Young Jung²

¹Department of Health Administration, Yonsei University

²Department of dental Hygiene, Gangneung Yeongdong College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취업을 앞둔 치위생(학)과 졸업생의 치과 건강보험에 관한 인식조사 및 치과 건강보험 수업의 운영에 있어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업의 구성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생각과 치과 건강보험 전문치과위생사 자격 도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4.0을 사용하였으며, 학생들이 희망하는 치과 건강보험 수업은 한 학기 수업 69명 (56.1%)이고, 수업 방식은 이론수업을 더 선호했으며 63명 (51.2%), 취업 시 가장 필요한 자격증으로는 '치과 건강보험 청구사' 96명 (78%)이 선택했다. 또한 치과 건강보험 청구하는 적당 직종으로는 93명 (75.6%)이 치과위생사를 선택하였다. 요인 분석을 시행한 결과 2가지 요인을 추출할 수 있었고, 상관계수는 0.01 수준 (양쪽)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리고 치과 건강보험 주관적 이해도, 치과 건강보험 청구인식 의지가 교육 이수 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32.8%의 설명력을 나타냈고, 교육 이수 의지가 자격증 취득 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22.3%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치과 건강보험교육을 이수하려는 학생들의 의지가 취업에서 경쟁우위를 달성하기 위한 자격증 취득 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치과보험교육의 방법과 수업시간 분배 등의 변화와 국가에서 시행하는 치과 건강보험 전문 치과위생사 자격 도입 등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how employed dental hygienists (graduates) and alumni are aware of dental health insurance and how to organize their classes for running efficient dental health insurance courses, and therefore to suggest opinions on the introduction of professional dental hygienist qualifications. The analyses was carried out using IBM SPSS Statistics 24.0. Sixty-nine students (56.1%) preferred one semester dental health insurance course as two semester courses and 63 students (51.2%) preferred theoretical course as practical course. Ninety-six (78%) students preferred dental health insurance claimants as others for their most necessary certification. Ninety-three dentists (75.6%) thought of the dental hygienist as the appropriate occupation for dental health insurance claims. The correlation coefficient wa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both sides) and all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The effect of subjective understanding of dental health insurance and the perception of dental health insurance claim on students' intention to complete those courses explained 32% of the response, and the effect of the intention to complete those courses on the willingness to earn a certificate explained 22.3%. This study reveals the willingness of students to complete those courses to acquire qualifications in order to achieve a competitive advantage in employment, and suggests the necessity of institutional improvements such as changing the method of dental insurance education, varying the class time distribution, and introducing dental health insurance professional dental hygienist qualification in the country.

Keywords : Acquisition professional license, Dental health insurance, Dental hygienists, Dental health insurance education, Employment

*Corresponding Author : Eun-Gyo Son(Yonsei University)

Tel: +82-10-7171-6882 email: son1687@hanmail.net

Received June 26, 2017

Accepted September 15, 2017

Revised (1st August 14, 2017, 2nd August 28, 2017)

Published September 30, 2017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몇 년 동안 건강보험 재정의 보호와 진료비 청구 심사가 강화되면서 보험청구 업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그러기 때문에 치과 의료계는 치과 건강보험 청구에 더욱 관심을 높였으며, 보수교육이나 세미나에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참여를 높였다.

의료기관의 개·폐업의 수가 2016년에 이르면서 개업보다 폐업하는 치과 병·의원의 수가 늘어났고, 2017년 현재까지도 개업보다 폐업의 수가 더 많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2017년 4월 말 기준 병원급 의료기관수는 3,797개소이고, 의원급 의료기관수는 6,168개소이다. 그중 치과병원은 159개소, 치과의원은 17,163개소가 운영 중이다 [1]. 위 결과와 같이 치과들은 경영의 어려움을 계속 호소하고 있으며, 문제의 해결이 잘 되지 못하면 폐업의 순을 밟게 되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돌파구 중 하나로 선택한 것이 치과 건강보험청구를 제대로 알고 청구하려는 노력이다. 그러기 위해서 치과들은 치과위생사나 데스크 업무를 보는 치과조무사도 보험청구 자격증 시험에 많이 응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보험청구 자격증을 가진 신입을 선호한다는 공고를 내기도 한다.

보험 청구에 치과의사들의 관심이 높아진 이유는 우리 사회의 노인 인구가 늘어났고, 앞으로도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있으며, 비급여 수입원인 틀니와 임플란트 등의 보험적용으로 인한 병원의 청구 판도가 바뀐 것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관심이 높은 치과의사와 반대로 보험 청구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수납과 서류상 업무를 부담스러워하고, 모르는 부분을 심사 평가원이나, 보험 청구 카페 등을 이용해 문의하면서 청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매년 바뀌는 정책 또한 청구업무를 담당하면서 진료를 시행해야 하는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다가온다.

2017년 6월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은 요양기관 현지 조사를 계획 중이다. 그중 치과도 4개소가 포함되어 있다. 현지조사의 선정사유는 입·내원일 수의 거짓 증일 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비급여 대상을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 실제 진료(투약) 하지 않은 행위의 거짓 청구, 의약품 대체청구 등이다 [2]. 이렇게 보험 청구에 위험을 알면서도 위법을 저지르게 되는 이유는 그동

안 비급여 진료를 많이 해온 치과 의료기관이 법적인 청구방법에 익숙하지 못하고 [3], 치과 의료기관의 시간과 인력부족, 건강보험 지식 부족으로 청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4]. 박신영 외 [5]의 연구에서는 치과병의원은 청구업무의 고충을 설명하며 청구 담당자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를 강조했으며, 건강보험 관련 교육이 업무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남용옥 외 [6]의 연구에서는 치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건수는 많아졌으나, 청구자의 교육은 미비하다고 지적하였다.

앞선 선행연구에서는 치과 건강보험 인식 관련해서 급여체계 인식, 치과 건강보험인식, 심사 조정인식, 치과 건강보험 인지도, 청구 담당자의 치과 건강보험 인식들을 다루었고 [7], [8], [9], [10], [11] 치과 건강보험의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요구도 조사와 정책 수립 제한이 이루어졌다 [12], [13]. 다음으로는 대학생의 자격증 취득 실태와 민간자격증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14], [15], [16], [17], [18], 치위생(학)과 학생의 교육현황과 인식 및 치과대학 건강보험 관련 교육 실태 연구가 이루어졌다 [19], [20], [21]. 마지막으로 치과 건강보험 청구 인력 자격제 도입에 관한 연구에서 치과 청구 인력 확보를 강조했다 [2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취업 전 치과 건강보험 교육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치과 보험 청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현 치위생(학)과의 치과 건강보험 수업 현황을 살펴보면서, 학생들의 수업 운영 후 느끼는 주관적 의식과 치과 건강보험청구 관련 자격증에 대한 의견 및 수업 운영방식을 생각해 보는 것으로 연구의 방향을 진행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취업을 앞둔 치위생(학)과 졸업생의 치과 건강보험에 관한 인식조사 및 치과 건강보험 수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업 구성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생각과 치과 건강보험 전문치과위생사 자격 도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치과 건강보험 관련 인식과 치과 건강보험 전문 인력 자격 관련 인식에 대하여 알아본다.

2. 치과 건강보험 주관적 이해도와 치과 건강보험 청구 인식에 대하여 알아본다.
3. 자격증 취득 의지에 미치는 영향과 치과 건강보험 전문 치과위생사 자격 도입에 관하여 생각해 본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표집방법

치위생(학)과 교육현황에 대해서는 전체 82개 치위생(학)과 중 3년제 48개교, 4년제 23개교를 조사하였다. 치위생(학)과 학생의 치과 건강보험 인식조사는 강원도 2개교의 졸업반 학생들로 2017년 6월 수업을 마친 후 3학년 98명, 4학년 27명으로 총 125명 중 123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2 연구도구

설문지 구성은 김영경 [19], [20]의 설문을 재구성하여 수업 진행 관련 의견 3문항, 치과 건강보험 관련 인식 7문항, 치과 건강보험 수업 후 주관적 이해도 6문항, 치과 건강보험 전문 인력 자격 관련 인식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크롬바 알파(Cronbach's α)값은 .799로 .6이상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신뢰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3 National dental health insurance education status

3 years				Total
2-2	3-1	3-2	3-1,2	
2	23	13	10	48
4 years				Total
4-1	4-2	4-1,2		
10	9	4		23

2.4 통계처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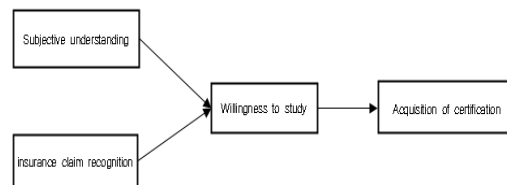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4.0을 사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희망 학기, 중요 수업방식, 취업에 가장 필요한 자격증, 치과 건강보험청구 적당 직종 인식을 빈도 분석하였다.
- 2) 치과 건강보험 주관적 이해도와 치과 건강보험 청

구 인식을 탐색적 요인 분석하였다.

- 3) 치과 건강보험 주관적 이해도와 치과 건강보험 청구 인식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크롬바 알파(Cronbach's α)로 분석하였다.
- 4) 치과 건강보험 주관적 이해도와 치과 건강보험 청구 인식에 대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 5) 학점 취득 의지에 따른 치과 건강보험 주관적 이해도, 치과 건강보험 청구 인식을 ANOVA로 분석하였다.
- 6) 치과 건강보험 주관적 이해도, 치과 건강보험 청구 인식 의지가 교육 이수 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 7) 학점 취득 의지가 자격증 취득 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단순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2.5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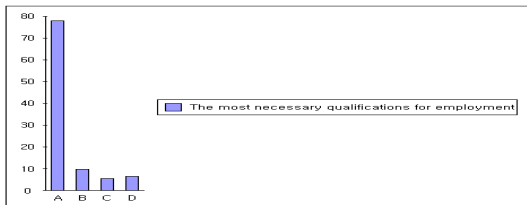
3. 연구결과 및 해석

3.1 치과 건강보험 관련 인식과 치과 건강보험 전문 인력 자격 관련인식

강원도 2개교는 3년제, 4년 제로 구성되어 있고, 두 학교 모두 1학기에 치과건강보험 수업이 있다. 두 학교 졸업반 학생들은 치과 건강보험 수업 희망하는 학기는 한 학기 수업 69명 (56.1%), 두 학기 수업 54명 (43.9%) 이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수업 방식은 이론수업 63명 (51.2%), 실기 수업 60명(48.8%)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에 가장 필요한 자격증으로는 치과 건강 보험청구사 96명 (78.0%), 병원 사무 관리사 12명 (9.8%), 치과 코디네이터 7명 (5.7%), 치과 감염관리사 8명 (6.5%)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치과 건강보험청구 적당한 직종으로는 치과위생사 93명 (75.6%), 치과 조무사 18명 (14.6%), 기타 대행업체 7명 (5.7%), 치과의사 5명 (4.1%)을 나타냈다<Tabl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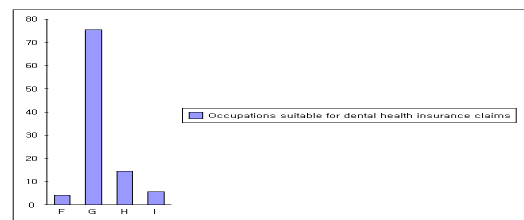
Table 1. Recognition of dental health insurance-related and dental health insurance professional qualifications N=123

Variable		n	%
deration of course	One semester class	69	56.1
	Two semester classes	54	43.9
	Total	123	100.0
Subjects	Theory course	63	51.2
	Practical course	60	48.8
	Total	123	100.0
	Dental health insurance claimant	96	78.0
The most necessary qualifications for employment	Dental Practice Management Officer	12	9.8
	Dental coordinator	7	5.7
	Dental infection manager	8	6.5
Occupations suitable for dental health insurance claims	Total	123	100.0
	Dentist	5	4.1
	Dental hygienist	93	75.6
	Dental assistant	18	14.6
	Other agency	7	5.7
	the others	123	100.0



* A: Dental health insurance claimant
 B: Dental Practice Management Officer
 C: Dental coordinator, D: Dental infection manager

Fig. 1. certificate



* F: Dentist, G: Dental hygienist,
 H: Dental assistant, I: Other agency

Fig. 2. A job suitable for a claim

3.2 치과 건강보험 주관적 이해도와 치과 건강보험 청구 인식 요인 분석

변수들 간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2개의 요인을 추

출하였다. 연구모형에 따라 문항을 대입하여 그중 관련도가 낮은 항목을 제거하고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은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였고, 요인의 회전은 베리맥스를 실시하였다. 또한 변수들 간의 적절성을 나타내는 KMO 값은 .729를 나타내었다 KMO 값이 일반적인 .5보다 크기 때문에 요인 분석을 실행함에 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Bartlett 값은 $P < .05$ 이면 대각 행렬이 아님을 의미하는데 본 요인 분석에서는 $P = .000$ 을 나타내어 요인 분석의 적절함을 알 수 있었다. 결과로 나온 변수는 회귀로 저장하였다.

다음으로 크롬바 알파(Cronbach's α)로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치과 건강보험 주관적 이해도는 .886이고, 청구인식은 .712로 .6이상의 수치를 나타내어서 신뢰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Table 2. Dental health insurance subjective understanding and dental health insurance claim recognition

Variable	1	2	Cronbach's α
A	preservation	.857	.886
	Root canal	.807	
	Oral Surgery	.786	
	Periodontal	.777	
	Prosthesis	.765	
	Extraction	.724	
B	Importance of billing ability	.832	.712
	usefulness for getting a job	.781	
	Employment association	.744	

KMO와 Bartlett = .729 $p = .000$ ***

* $p < .05$, ** $p < .01$, *** $p < .001$

** A: Subjective understanding

B: Awareness of insurance claims

3.3 치과 건강보험 주관적 이해도, 치과 건강보험 청구 인식 상관분석

앞서 시행된 설문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요인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방법은 피어슨(Pearson) 상관분석을 사용하여 변수 간의 인과성을 확인하였다. 먼저 치과 건강보험 주관적 이해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관 계수는 0.01 수준 양쪽에서 유의하고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Table 3>. 다음으로 과 건강보험 청구 인식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또한 성관 계수는 0.01 수준 양쪽에서 유의하고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Table 4>.

Table 3. Subjective understanding of dental health insurance

	preservation	Root canal	Extraction	Oral Surgery	Periodontal	Prosthesis
A	1	.773**	.595**	.544**	.512**	.644**
B	.773**	1	.463**	.534**	.490**	.517**
C	.595**	.463**	1	.662**	.569**	.444**
D	.544**	.534**	.662**	1	.674**	.441**
E	.512**	.490**	.569**	.674**	1	.603**
F	.644**	.517**	.444**	.441**	.603**	1

* The correlation coefficient is at 0.01 level (both sides).
 ** A: preservation B: Root canal, C: Extraction, D: Oral Surgery, E: Periodontal, F: Prosthesis

Table 4. perception of dental health insurance claim

	Employment association	Claim capability significance	Help with employment	intention to complete courses
A	1	.544**	.347**	.421**
B	.544**	1	.480**	.497**
C	.347**	.480**	1	.343**
D	.421**	.497**	.343**	1

* The correlation coefficient is at 0.01 level (both sides).
 ** A: Employment association
 B: Claim capability significance
 C: Help with employment,
 D: intention to complete courses

3.4 학점 이수 의지에 따른 치과 건강보험 주관적 이해도와 치과 건강보험 청구 인식

학점 이수 의지에 따른 치과 건강보험 주관적 이해도를 분산분석으로 살펴보았다.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구강외과를 제외한 보존, 근관, 발치, 치주, 보철의 이해도는 $p < .05$ 이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Levene 통계량으로 동질적 집단 여부 값 1.96을 넘었고, 사후 분석인 Scheffe 분석한 결과 집단 간의 크기는 동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존은 $F = 4.423, P = .002$, 근관 $F = 2.2982, P = .022$, 발치 $F = 4.098, P = .004$, 구강외과 $F = 2.382, P = .058$, 치주 $F = 2.577, P = .041$, 보철 $F = 4.586, P = .002$ 를 나타내었다 <Table 5>.

다음으로 학점 이수 의지에 따른 치과 건강보험 청구 인식 분석 결과 $p < .001$ 이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사후 분석인 Scheffe 분석한 결과 집단 간의 크기는 동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 보험청구 과목이 임상에서 치과위생사의 직무

와 연관성이 높다’ 항목에서 $F = 7.686, P = .000$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치과 보험청구 과목이 취업에 도움을 준다’라는 항목은 $F = 4.988, P = .001$ 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임상에서 치과 건강보험 청구 능력은 중요 하다’라는 항목은 $F = 12.978, P = .000$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Table 5. Subjective understanding of dental health insurance according to intention to complete courses

	intention to complete courses	N	Mean	SD	F	P
A	Very low	2	2.00	.000	4.423	.002**
	low	4	2.25	.957		
	usually	34	2.71	.579		
	high	66	3.00	.679		
	Very high	17	3.35	.931		
	Total	123	2.93	.737		
B	Very low	2	2.00	.000	2.2982	.022*
	low	4	2.25	.957		
	usually	34	2.79	.770		
	high	66	3.03	.656		
	Very high	17	3.24	.903		
	Total	123	2.95	.756		
C	Very low	2	2.50	.707	4.098	.004**
	low	4	2.25	.957		
	usually	34	2.85	.610		
	high	66	3.09	.717		
	Very high	17	3.53	.874		
	Total	123	3.05	.756		
D	Very low	2	2.50	.707	2.352	.058
	low	4	2.25	.957		
	usually	34	2.74	.618		
	high	66	3.05	.711		
	Very high	17	3.12	.928		
	Total	123	2.93	.744		
E	Very low	2	2.00	.000	2.577	.041*
	low	4	2.25	.957		
	usually	34	2.74	.618		
	high	66	2.97	.701		
	Very high	17	3.12	.928		
	Total	123	2.89	.738		
F	Very low	2	2.00	.000	4.586	.002**
	low	4	2.25	.957		
	usually	34	2.76	.606		
	high	66	3.12	.734		
	Very high	17	3.41	.939		
	Total	123	3.02	.779		

* $p < .05$, ** $p < .01$, *** $p < .001$

** A: preservation B: Root canal, C: Extraction, D: Oral Surgery, E: Periodontal, F: Prosthesis

Table 6. Perception of dental health insurance claims by intention to complete course

	intention to complete courses	N	Mean	SD	F	P
A	Very low	2	3.00	1.414	7.686	.000***
	low	4	4.25	.500		
	usually	34	4.06	.694		
	high	66	4.39	.605		
	Very high	17	4.88	.332		
	Total	123	4.34	.675		
B	Very low	2	2.50	.707	4.938	.001**
	low	4	4.00	.000		
	usually	34	3.74	.666		
	high	66	4.11	.825		
	Very high	17	4.47	.717		
Total	123	4.02	.804			
C	Very low	2	2.50	.707	12.978	.000***
	low	4	4.25	.500		
	usually	34	3.74	.618		
	high	66	4.27	.669		
	Very high	17	4.82	.393		
	Total	123	4.17	.732		

*p<.05, **p<.01, ***p<.001

** A: Employment association, B: Help with employment,

C: Claim capability significance

3.5 치과 건강보험 주관적 이해도, 치과 건강보험 청구 인식이 학점 이수 의지에 미치는 영향

치과 건강보험 주관적 이해도, 치과 건강보험 청구 인식이 학점 이수 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는 학점 이수이고 독립변수는 요인 분석에서 회귀식으로 저장한 변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변수 간의 유의 확률은 P = .000으로 유의하였고, R = .573으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R² = .328로 회귀선이 학점 이수 의지에 대해 32.9%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잔차에 독립성을 검토하는 Durbin-Watson의 수치는 0- 4까지의 값을 가지며 2에 가까우면 독립적이라 할 수 있는데 분석 결과 Durbin-Watson의 수치 2.204로 2에 가까우므로 독립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회귀식에서 F = 29.261, 유의확률은 .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VIF 값은 1.000 으로 10 미만이므로 다중 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회귀식은 Y = β₀ + β₁ X₁ + β₂ X₂ 로 학점 이수 의지 = 3.748 + .253 (이해도) + .379(청구 인식)을 나타냈다 <Table 7>.

Table 7. Effects of subjective understanding of Dental Health Insurance and perception of insurance claim on intention to complete courses

variable	B	SE	β	t	P
Understanding	.253	.060	.318	4.254	.000***
Awareness of insurance claims	.379	.060	.476	6.358	

F = 29.261 R² = .328 DW = 2.204

3.6 학점 이수 의지가 자격증 취득 의지에 미치는 영향

학점 이수 의지가 자격증 취득 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단순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는 자격증 취득 의지로 하고 독립변수로는 학점 이수 의지를 투입하였다. 그 결과 모든 변수 간의 유의 확률은 P = .000으로 유의하였고, R = .472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R² = .223으로 자격증 취득 의지에 22.3%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Durbin-Watson의 수치는 1.851로 2에 가까워 독립적으로 나타났고, 회귀식에서 F 값은 34.556, 유의 확률은 P = .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VIF 값은 1.000 으로 10 미만이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다 마지막으로 ‘Y = β₀ + β₁ X’과 같은 회귀식을 구성하는 상수와 계수를 확인 할 수 있다. 즉 상수 2.571, 독립변수인 X에 해당하는 계수는 .418이므로 회귀식은 Y = 2.571 + 0.418이고 Y값은 .0278(하한값)- .559(상한값) 사이에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과를 확인하면 학점 이수 의지가 증가함에 따라 자격증 취득 의지는 .418의 기울기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8>.

Table 8. The Influence of intention to complete courses on the willingness to earning certificate

variable	B	SE	β	t	P
(Constant)	2.571	.272		9.445	.000***
intention to complete courses	.418	.071	.472	5.887	

F = 34.656 R² = .223 DW = 1.851

4. 고찰

치과 건강보험 보장 성 확대는 2009- 2017까지 내용

을 보면 치석제거, 노인틀니, 임플란트, 치아 홈 메우기 등을 확대시켰고, 2018년 10월에는 12세 이하의 충치 치료를 광중합 레진으로 진행하는 것도 보험적용 계획에 있다. 고액 비급여 비용의 해소와 증가 억제를 위해 매년 새로운 보험정책이 적용되어 환자들에게 제공된다. 하지만 임상에 있는 치과 의료인이 매년 바뀌는 정책을 올바르게 적용하는 것도 힘들고, 사회 초년차인 신규 치과위생사의 경우 임상을 배우느냐 보험 청구를 신경 쓰지 못한다. 그러다 연차가 오르고서야 보험 청구를 시작하게 되고, 다시 공부를 시작해야하는 막막함이 보험을 꺼리는 분야로 보게 만든다.

한동안 병원의 경영이 악화되면서 비급여 진료나 수술보다는 보험 청구에 의존하는 병원들이 많아졌다. 그로 인한 부작용으로 부당청구가 생기기도 하고, 보험청구의 실력 부족으로 많은 삭감이 생겨 고민을 토로하는 치과위생사들을 볼 수 있다. 또한 본인이 하는 청구가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은 치과 건강보험청구에 대한 치과의사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져서 학생들의 취업 시 보험 관련 자격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학생들 또한 실습을 다녀오고 나면 보험의 중요성을 더욱 느끼게 된다고 토로하였다. 하지만 결론은 ‘너무 어렵다’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다.

기존 연구에서 치과위생사가 치과 건강보험청구를 하는데 적당한 직종이라고 생각하는 비중 이 높았다[11], [20]. 본 연구에서도 치과위생사가 치과 건강보험 청구를 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학생은 93명 (75.6%)이었고, 류혜경 외 [11]의 연구 결과에서는 치과보험 청구는 80.4%, 김영경 [20]의 결과에서 74.4%가 치과위생사가 청구하는 적이 적당하다고 나타났다. 또한 연령이 높고, 경험이 많을수록 산정이나 인식을 받아들이는 이해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11]. 이 결과를 보면 학생들이 치과 건강보험 수업을 이해하는 주관적 이해도가 아주 높지 못한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보험청구의 능력을 요구하는 치과계의 취업 준비생으로서 학생들이 ‘어린 연차니까’, ‘보험은 어려우니까’ 등으로 포기를 하게 할 수는 없다. 앞선 연구에서는 치과대학과 치위생과 학생들은 치과 건강보험 교육이 시간이 부족하고, 치과 대학생들은 청구 실무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20],[21]. 본 연구자가 수업을 운영함에 있어 학생들은 많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과목으로 느끼는 것을 보았고, 치과 보험청구의 수업에 있

어 한 학기 수업은 운영 면에서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매년 느끼게 되었다. 그 결과로 두 학기의 수업 운영이 학생들에게 더욱 효율적인 결과를 나타낼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결과는 학생들이 비슷한 분포이지만 수업의 구성 선택에서 ‘한 학기’ 수업을 더 선택하여 학생들의 의견과는 맞지 않았다.

서화정 외 [18]는 보건의료 관련 학과 학생들은 동일계 취업률을 향상하기 위해서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학생들은 교육 이수에 의지가 높고, 자격증 취득까지 의지를 나타낸 것은 교육과정 끝에 학생 전체에게 자격증 시험을 보도록 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치과계도 보험 관련 자격증을 원하고, 학생들도 학점 이수 의지가 높고, 취업에 보험 관련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학생들이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지 말고 학교들이 연합하여 공통의 조건에서 학생들에게 시험을 보게 하고,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본 연구에서 취업에는 연관성도 높고, 취업에도 도움이 되고, 치과보험청구가 중요하다고 학생들이 인식하고 있어도 학생들 주관적 이해도는 학점 이수 의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안세연 외 [22]의 연구에서 제안한 것처럼 치과 건강보험 청구 인력 자격제를 국가 자격제로 도입하여 치과 보험 청구에 적성이 맞는 학생은 치과 보험청구 전문 치과위생사로 선발하고, 병원에 취업 후 본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그렇게 되면 오랫동안 임상만 한 치과위생사의 보험 청구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도 있고, 병원 입장에서는 부당청구나 허위 청구 등 모르고 저지르는 범죄로부터 조금은 안전할 수 있으며, 치과 보험청구 전문 치과위생사는 임상에서 실력을 쌓아서 진출하고 싶다면 나중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좀 더 실력 있는 업무를 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적절한 교육시간과 제도의 도입 등 맞춤형 교육과정이 시행되어야 하겠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취업을 앞둔 치위생(학)과 졸업생의 치과 건강보험에 관한 인식조사 및 치과 건강보험 수업의 운영에 있어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업의 구성

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생각과 치과 건강보험 전문치과위생사 자격 도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시행되었고 설문대상은 강원도 2개교의 졸업반 학생들로 2017년 6월 수업을 마친 후 3학년 98명, 4학년 27명으로 총 125명 중 123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학생들이 희망하는 치과 건강보험 수업은 한 학기 수업 69명 (56.1%)이고, 이론수업을 더 선호했으며 63명 (51.2%), 취업 시 가장 필요한 자격증으로는 ‘치과 건강 보험청구사’ 96명 (78%)이 선택했다. 또한 치과 건강보험 청구하는 적당 직종으로는 93명 (75.6%)이 치과위생사를 선택하였다.
- 2) 요인 분석을 시행한 결과 2가지 요인을 추출할 수 있었고, 명칭을 주관적 이해도와 청구 인식으로 나누었고 신뢰도는 크롬바 알파(Cronbach's α)로 측정하였으며, 결과로는 주관적 이해도가 .886, 청구 인식이 .712로 신뢰도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상관분석은 피어슨(Pearson) 상관분석을 사용하여 변수 간의 인과성을 확인하였다 결과로 상관계수는 0.01 수준 (양쪽)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 4) 교육 이수 의지에 따른 치과 건강보험 주관적 이해도를 분산분석은 구강외과를 제외한 보존, 근관, 발치, 치주, 보철의 이해도는 $p < .05$ 이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교육 이수 의지에 따른 치과 건강보험 청구 인식 분석 결과 직무연관성, 취업 도움, 청구 능력 중요도는 $p < .001$ 이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 5) 치과 건강보험 주관적 이해도, 치과 건강보험 청구 인식 의지가 교육 이수 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32.8%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 6) 교육 이수 의지가 자격증 취득 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22.3%의 설명력을 나타 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전국의 치과위생사의 교육현황을 파악하고 그 학기 운영 후 결과를 본 연구가 아닌 일부 3년제 1개교와 4년제 1개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것에 있어 전체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 학생들의 학점 이수 의지와 자

격증 취득 의지를 알 수 있었으며, 현 치과계의 상황과 학교 교과과정의 운영을 살펴보는 것으로 치과 건강보험 청구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된 것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치과보험청구 전문 치과위생사를 별도로 선발하는 것보다 치과위생사에게 한 단계 upgrade 하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치과 입장에서 인건비 추가 부담이 없으면서, 청구 누락을 줄여 손실 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한다.

향후 연구에는 교육 현황별로 비교하는 연구를 해 보는 것과, 치과 건강보험 전문 치과위생사의 도입에 대한 의견을 치과위생사 상대로 연구해 보는 것을 제안해 본다.

References

- [1] <http://opendata.hira.or.kr/op/opc/olapYadmPrsnt.do>
- [2] <http://www.kdha.or.kr/introduce/relatedsite.aspx>
- [3] S. B. Jin, Working Knowledg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dental clinic: dental records and the receipt book, Korean Dent Assoc, vol. 54, no. 6, pp. 448-456, 2016.
- [4] E. M. Yoo, S. Y. Ahn, H. S. Choi, S. H. Hwang, B. K. Oh: A study on the state of the claim of dental medical institutions for payment from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J Dent Hyg Sci, vol. 14, no. 1, pp. 31-35, 2011.
- [5] S. Y. Park, H. R. Moon, Analysis of the knowledge and insurance screening review rates of health insurance claims in the dental hygienist, J Korean Soc Dent Hyg, vol. 15, no. 3, pp. 353-361, 2015.
DOI: <http://dx.doi.org/10.13065/jksdh.2015.15.03.353>
- [6] Y. O. Nam, S. H. Kim, M. J. Kim, The investigation of the degree of the request of the education about the claim for the medical expenses in the dentistry health insurance, J Korean Soc Dent Hyg, vol. 11, no. 3, pp. 325-341, 2011.
- [7] J. H. Han, Y. S. Kim, A study on Awareness of Dental Health Insurance Coverage, J Dent Hyg Sci, vol. 8, no. 2, pp. 65-71, 2008.
- [8] S. H. Kim, M. J. Kim, Y. O. Nam, Analysis research about awareness of demanders of recuperation allowance for dental clinic health insurance in Daejun and Chungchung srea, J Korean Soc Dent Hyg, vol. 11, no. 2, pp. 275 -289, 2011.
- [9] J. M. Hwang, J. H. Kim, Y. D. Park, Dental service providers satisfaction with dental health insurance, J Korean Acad Oral Health, vol. 34, no. 2, pp. 214-221, 2010.
- [10] H. S. Kim, Awareness of Dental Institution Employees in Charge of Health Insurance Claim on Health Insurance and Related Education in Jeollabuk-do, [Master's thesis]. Jeolla-do: Univ. of Wongwang, 2014.

- [11] H. G. Ryu, Y. I. Ku, S. S. Choi, Research on the Oral Health Professionals Awareness of the Dental Health Insurance Standard, J Korean Clin Health Sci, vol. 1, no. 3, pp. 1-9, 2013.
- [12] Y. O. Nam, S. H. Kim, M. J. Kim, The investigation of the degree of the request of the education about the claim for the medical expenses in the dentistry health insurance - mainly in Daejeon, Chungcheong area-, J Korean Soc Dent Hyg, vol. 11, no. 3, pp. 325- 341, 2011.
- [13] S. B. Jin. The need for health insurance education for dentists and suggestions for policy formulation, J Korean Acad Dent Insur, vol. 3, no. 1, pp. 23-30, 2012.
- [14] Y. S. Ahn, Y. J. Kim, H. J. Chung, H. J. Seo, Status and Stregies of License Acquisition of University Students for Regional HRD, J Life Edu HRD, vol. 7, no. 3, pp. 125-151, 2011.
- [15] H. J. Yang, W. S. Suh, Analysing Training Program for Hospital Coordinators, J Korea Cont Soc, vol. 13 , no. 12, pp. 530-536, 2013.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3.13.12.530>
- [16] S. P. Kim, M. S. Lee, Effects of Private Certificate Holder's Motivation for Certificate Affects Career Development and Job Satisfaction, J Korea Cont Soc, vol. 16, no. 1, pp. 352-361, 2016.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6.16.01.352>
- [17] S. P. Kim, M. S. Lee,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s Private Certificate Role on Job Engagement, J Hotel Resort, vol. 14 , no. 4, pp. 355-373, 2015.
- [18] H. J. Seo, H. J. Park, The Impact of Satisfaction with Major Curriculum on Acquisition of Certification and Employment for College students with Major in Healthcare, J Korea Hosp Mang, vol. 22 , no. 1, pp. 51-60, 2017.
- [19] Y. K. Kim, Educational status and awareness of dental health insurance in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J Korean Clin Health Sci, vol. 2 , no. 1, pp. 15-22, 2011.
- [20] Y.K. Kim, Dental Hygiene Students' Subjective Awareness of the Dental Health Insurance, J Korea soc, vol. 2, no. 2, pp. 109-121, 2000.
- [21] J. B. Kim, S. H. Jeong, J. K. Yang, Education related to National Health Insurance at dental colleges and colleges and graduate schools of dentistry in Korea, J Korean Clin Health Sci, vol. 1, no. 18, pp. 8-16, 2010.
- [22] S. Y. Ahn, B. K. Oh, S. H. Hwang, E. M. Yoo, J. Y. Han, Introduction to the Public Dental Insurance Clim Professionals System, J Korea soc, vol. 16 , no. 2, pp. 89-98, 2014.

손 은 교(Eun-Kyo Son)

[정회원]



- 2012년 2월 : 연세대학교 보건환경대학원 보건 관리학(석사)
- 2015년 9월 ~ 현재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 보건행정학(박사과정)

<관심분야>
치위생, 감염관리, 보건

김 영 진(Young-Jin Kim)

[정회원]



- 2000년 3월 :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 (석사)
- 2014년 3월 ~ 현재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 보건행정학(박사과정)

<관심분야>
보건, 교육, 병원경영

정 화 영(Hwa-Young Jung)

[정회원]



- 2004년 8월 : 중앙대학교 보건학(석사)
- 2010년 2월 : 한양대학교 보건학(박사)

<관심분야>
치위생, 보건